

“세계불교 활성화, 인도에서 부터 ...”



세계 불교지도사 회의 본회의장 전경. 위의 사진 왼쪽은 압둘 칼람 인도 대통령이 개회 선언 램프에 점등하는 모습. 오른쪽은 대통령이 보리수 화분을 법륜 스님(정토회 지도법사)에게 증정하는 장면.

뉴델리서 열린 '세계불교 지도사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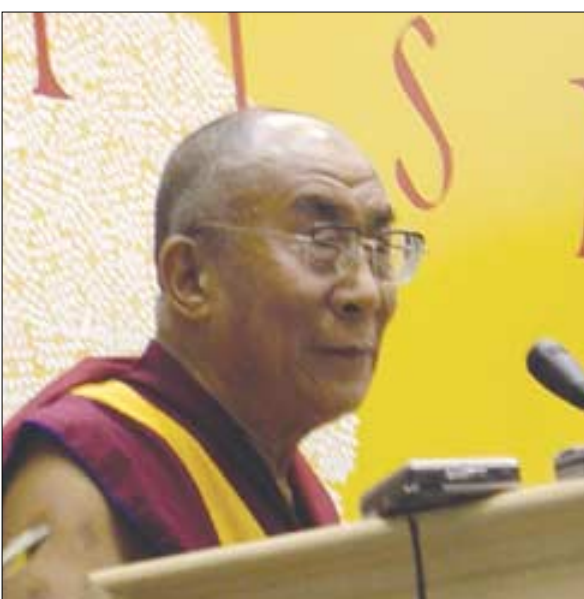
세계불교 지도사회의 (International Conclave on Buddhism and Spiritual Tourism)가 인도 문화관광부 주최로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됐다. 세계 25개국 410명의 불자들이 참가한 이번 회의의 주제는 '불교와 종교적 여행'. 21세기를 맞아 지구촌에서의 불교의 역할을 제시하고 불교의 고향인 인도의 불교성지 개발과 활성화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첫날인 17일 압둘 칼람(J. P. Abdul Kalam) 인도 대통령의 개회연설로 시작된 국제회의에서는 달라이 라마의 법어에 이어 모두 다

‘불교와 종교적 여행’ 주제로 25개국 410명 참가
한국의 근일·법륜 스님 등 3명 발표자로 나서
인도 불교 현황과 비전 등 현실적 이슈 제의 아쉬움

섯 개의 패널 토의에서 39명의 발표자들이 발표 했다. 각 패널마다 불교와 세계평화, 21세기의 불교, 인도의 불교성지, 불교와 세계화, 성지순례의 활성화를 주제로 각국 대표의 발표와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또 인도 문화관광부 자그모한(Jagmohan) 장관의 인도 불교성지 개발에 관한 소개와 역시 문화관광부에서 준비한 인도 각 주의 불교성지, 유적지를 소개하는 별도의 패널도 준비됐다.

이 외에도 주최측은 멀티미디어 발표회를 따로 마련했다. 태국의 '메 화 무양 재단'에서 연구중인 레버(Titus Leber) 박사와 인도의 고미술사학자이며 보존처리 전문가인 비노이 벨(Benoy Behl) 씨는 불교 미술을 소재로 한 멀티미디어 작품 감상의 시간도 열었다.



달라이라마 법문 요약

나라, 언어는 달라도 모두 붓다의 제자
 개개인 모두 마음속 불성 지니고 있어
 종교에 믿음 가질때 자비 세계 구현

우리 불자들은 삶 속에서 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불교도, 힌두교도, 이슬람교도 혹은 무신론자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떤 종교와 신념을 가지고 있던, 개개인 모두는 마음속 깊은 곳에 불성을 가지고 있으며, 독립된 개체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에서도 아원사, 즉 비폭력의 원칙을 매우 중요하게 설하셨습니다. 비폭력이란 단 순히 폭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서 미물에 이르는 모든 중생들에 대한 깊은 자비심입니다.

모든 종교는 내적인 평정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양성을 추구하는 현대 사회는 마치 '종교의 수퍼마켓' 과도 같아서 전 인류가 같은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 하지요. 사실, 불교라는 한 종교만 놓고 보아도 붓다라는 한 스승으로부터 나온 가르침이 여러 가지의 유파를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같은 진리라도 각각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가르치셨기 때문인입니다.

우리는 불자로서 스승이신 붓다의 가르침을 신실하게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다른 종교인들도 각각 신봉하는 종교의 가르침을 열심히 실천해 나가야 하구요. 이렇게 할 때, 모든 종교인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자비의 세계가 구현될 것입니다.

불교 성지에 대해서 인도 문화관광부에 한 가지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종교적 여행이란 종교 유적지를 찾아가서 종교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입니다. 성지에 가서 불상을 보고 경배하는 것도 좋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불상과 건물은 보존

회의 마지막 날인 19일에는 특별기와 특별열차 편으로 모든 참가자들이 부다가야와 사르나트로 이동, 대표적인 불교성지를 직접 둘러보고 현지의 불교사원들을 방문해서 법회를 갖기도 했다. 한편, 한국에서는 10명의 스님과 불자들이 이번 회의에 참석했고, 이중 세 명이 패널에 직접 참가해서 발표를 했다. 부석사 주지 근일 스님은 불교와 세계평화 패널에서 "우주의 모든 유정(有情)과 무정(無情)이 다 너의 모습"이라는 주제로 법어를 했으며, 수자타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인도 현지 포교에 앞장서고 있는 법륜 스님이 인도 불교성지와 성지순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제시했다. 또한 원불교 강남교당의 박정수 교무도 '불교와 세계화' 패널에서 발표자로 나섰다.

이번 회의를 주최하는데 모든 실무를 진두지휘한 인도 문화관광부의 라쉬미 바르마 국장은 이 회의의 목적을 "인도 곳곳에 산재해 있는 많은 불교유적들이 국제 사회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이 안타까웠다. 그런 가치있는 불교 문화유산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의 목적이 말해주듯 이번 행사의 많은 부분은 인도의 성지와 불교유적지, 불교예술의 소개나 그에 관련한 논의들이 주를 이루었다.

반면, 인도의 불교 실태와 신도들에 관련된 실제적인 이슈는 지나치게 도외시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베트남 출신으로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틱 쿠앙 바(Thick Quang Ba) 스님은 발표 도중 "이번 회의에 평가 중요한 것이 빠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도에서 직접 불교를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지적했으며, 독일의 베른트 발라슈스(Bernt Balaschus) 씨도 발표를 통해 인도의 불교 커뮤니티의 열악한 현실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많은 인도 현지의 불자들이 집의 응답 시간을 이용하여 마하보다 사원의 운영권을 불교도의 손으로 돌려달라는 요구를 세계의 불자들에게 알렸으며, 현지의 불자들 뿐 아니라 스리랑카와 미얀마에서 온 발표자들도 발표문을 통해 마하보다 사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뉴델리=이지은 인도통신원

인도 국립박물관 불교미술 특별전

3~20세기 까지 100여점의 유물 전시
 15세기 히말라야 지역 태화, 불경 눈길



인도 문화관광부는 국제회의를 기념, 2월 17일~3월 4일 불교미술 특별전을 열고 있다. 15세기 히말라야 지역의 태화와 불경을 비롯 3~20세기까지의 불교유물 100여점을 전시중이다. 부처님 일대기를 새겨 놓은 상자를 관람하는 불자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붓다의 말씀을 가능하면 많은 언어로 번역하여 성지에 게시하여 많은 사람들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한다던 더욱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붓다께서는 저와 같은 수도승이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한 나라의 왕자였고 모든 것이 보장된 자리에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불하기 위하여 그런 모든 안락함을 스스로 포기하고 일개 수도승이 되신 것입니다. 스승이신 붓다의 이러한 자세를 모범으로 삼으시기를 여러 스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윤년 윤달의 효도 선물 대광[孝]수의로 하세요

갑신년 윤달 수의 특별가로 불자님들을 모십니다
 불자님들을 위한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수의 가격표

상품명	재질(성분)	원사가공지	판매가격
국화1호	삼베100%	경북안동지방	1,515,000
국화2호	삼베100%	강원일부지방	1,395,000
국화5호	삼베100%	경남남해지방	1,249,000
국화7호	삼베100%	충남서천,홍성지방	950,000
특 1호	삼베100%	중 국	670,000
보성삼베	대마+저마	전남보성지방	1,450,000
남해삼베	삼베100%	경북남해지방	2,345,000
안동삼베	삼베100%	경북안동지방	4,300,000

윤달3월21~4월20일 원하시는 날 받으실 수 있도록 예약 주문 받습니다.

수의제품 품질보증업체 Q마크 획득



세시풍속 <歲時風俗>

윤달(潤月)은 제액없이 무난하게 여기고 모든일을 거러김없이 하는 풍속이 내려오고 있다. 특히 윤달중에 한달이 넘으로 있는 윤달에는 손재 등이 없는 기간으로 모든일에 부정을 타거나 액이 끼이지 않는 달로 인식되어 왔고, 그래서 평소에 꺼려하던 이장(조상의 묘를 옮기는 일), 집을 헐고 새로 짓는 일 등을 윤달에 하는 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예이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집안어른의 수의를 마련해두면 집안어른이 무병장수하고 자손도 번창한다는 세시 풍속이 있다. 그 뜻을 미루어 짐작컨대, 수의를 마련함으로 자손들은 여생이 얼마남지 않은 집안어른을 더욱 공경하고 효심으로 만드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지 않았는가 생각되며 집안어른은 죽음을 다스리고 대비하면서 여생에 대한 진한 삶을 살고자 했던 조상들의 지혜라 여겨집니다.

대광[孝]윤년수의를 미리 마련해 놓으시면...

- (1) 믿을 수 있는 좋은 품질의 제품을 여유있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시중에는 혼합된 원단으로 만들어진 제품들이 고가품으로 둔갑하여 유통되고 있으나 금년 윤달에 "대광"에서는 고품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막상 큰일을 당하여 급한 나머지 아무 수의나 입혀드린 후 후두고 후회하는 일을 겪지 않으셔도 됩니다.
- (2) 고품질의 수의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큰일을 당하여 경황없는 중에 저가품의 수의를 비싼 가격에 구입하시는 일이 비일비재 한 것은 현재 유통의 문제점입니다. 좋은 품질의 수의를 저렴한 시기 윤달에 구입하시는 것은 이관점들을 고려해 볼때 좋은 기회라 생각됩니다.
- (3) 금년 윤년 "대광상사"에서는 좋은 삼베만을 골라 한올한올 공경과 정성의 마음을 담아 맞춤 비스질한 제품을 그 동안 대광 삼베를 성원해 주신 보답으로 불자님 여러분들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 (4) 수의의 옷감은 자연섬유로만 사용하여야 매장용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수년만에 윤달이 가장 좋은 해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길년에 효도하시고 고품질에 수의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시어 두가지의 행운을 함께 하십시오.

윤년에 수의를 준비하시는 불자님에게는 오동나무 상자를 무료로 공급해 드립니다.



서울시 종로구 예지동 296-19 광정시장(1층)
 TEL. 02)2275-8075, 2279-7450 FAX. 02)2272-6715